

## ‘부울경 메가시티’ 초광역 협력 모델 선도한다!

- 정부, 14일 <균형발전 성과 및 초광역 협력 추진전략 보고회> 개최
- ‘부울경 메가시티’ 발표...지역 주도의 초광역 협력 선도 모델로 입지 다져

부울경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를 통한 ‘부울경 메가시티 추진전략’이 정부의 국가 균형발전 정책의 패러다임을 이끄는 선도 모델로서 입지를 확실히 다진다.

14일 오후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진행된 <균형발전 성과 및 초광역 협력 추진전략 보고회>에서 지역이 주도하는 권역별 초광역 협력의 선도 사례로 ‘부울경 메가시티 추진전략’을 발표했다.

이번 보고회는 정부가 추진한 균형발전 정책의 성과를 알리고 수도권 일극체제의 극복의지를 강조하기 위해 지역이 주도하는 초광역 협력을 국가 균형발전의 핵심정책으로 선언했다. 17개 시·도지사와 정부 관계부처가 참석한 가운데 전국 4개 권역의 초광역협력 사례와 함께 정부의 지원방안 등을 발표했다.

이 자리에서 박형준 부산시장이 ‘부울경 메가시티 추진전략’을 선도 사례로 발표했고, 이어서 충청권, 대구·경북, 광주·전남 순으로 추진전략이 소개됐다.

부울경은 추진전략의 배경, 그간 추진해 온 부울경 협력의 역사와 초광역 협력의 비전 및 목표를 설명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기후 위기 대응 선도’, ‘혁신 기반 동반 성장’, ‘공간 압축 초광역 인프라’의 3대 분야와 8대 중점 과제를 제시하면서 전국 최초로 추진하는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설치 일정을 보고했다.

한편 부산, 울산, 경남은 ‘부울경 메가시티 조성’을 추진할 책임주체인 부울경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를 협약하고, 설치에 필요한 실무를 전담할 부울경 특별

지방자치단체 합동추진단을 지난 7월 출범시켰다.

합동추진단은 규약 제정, 초광역사무 발굴, 시도민 공감대 확산 등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에 필요한 핵심 준비사항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있으며, 내년 3월까지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 절차를 마무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하병필 경남도지사 권한대행은 “경남은 부울경 메가시티를 제안하여 초광역 협력을 선도해 왔고, 지금은 중앙정부의 전폭적인 지원과 사무이양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부울경 메가시티의 빠른 성공을 위해서는 부전~마산 간 전동열차의 국가 운영 등 초광역 교통 인프라 확충을 통한 공동생활권 형성이 필요하다.”면서 “부울경은 초광역 협력 체계를 선도적으로 이끌어 국가 균형발전의 새로운 표준을 만들어 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동남권전략기획과 구봉수 주무관(055-211-4153), 장 용 주무관(055-211-4154)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